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韓 鍾 愚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完工 서두르는 奎章閣 博物館

母校의 부속건물 계획대로 세워진다 : 着工한지 수년, 그대로 放置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규장각·박물관 신축건물이 당초의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다. 예산상 일반건물과 같은 건축비 책정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겨레의 유산을 보관할 건물임을 생각할 때 늑장 부리는 것처럼 보여 답답한 마음이 들곤 했다. 〈사진 : ㉰ 규장각, 괄호안 사진은 박물관 건물〉.

冠岳春秋

母校를 더욱 發展시키자

母校는 冠岳으로 移轉한 이후로 많은 발전을 이룩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선 외형상으로 많은 教育施設의 확충을 들 수 있다. 冠岳으로 이전한후의 오래된 숙원이었던 文化館이 완공되어 요즘에는 大學의 갖가지 행사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週末에는 이 행사를 參觀하려는 시내의 남녀고등학생까지 줄을 지어 개관을 기다리는 때도 가끔 있다. 母校가 문화적 행사를 위한 장안의 명소가 될 날도 그리멀지 않을 것같아서 마음이 흐뭇하다. 86년도의 아시안게임을 위해 신축된室內體育館은 매우 異色的이다. 이 체육관에서는 작년에 同窓會「母校訪問의 날」행사가 개최된 일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同門은 그 모습을 보았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번 88년도의 올림픽에서는 卓球경기장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밖에 厚生館이 新築되어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시설중에 特記할만한 것은 菊山圖書館일 것이다. 이것은 故金澤壽동문의 出捐으로 세워진法學圖書館이다. 이미 그이전에도 同門의 篤志를 기리기 위한 蓮崗記念館이 세워진 일이 있다. 母校에 이러한 同門의 篤志로 이룩 되는 記念事業館이 많아져야 한다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母校의 그동안의 발전은 물론이러한 教育施設의 확충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작년에는 母校發展長期計劃이 수립되어 금년에는 第2次年度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계획속에는 大學組織의 개편을 가져올 設置令改正 學則改正등까지 포함되어 있다. 母校도 종전의 設置令이나 學則으로서는 새時代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同門으로서는 이러한 母校의 발전을 위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무엇이든 우리 同門으로서의 기여할 바를 찾아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세간에는 母校의 발전문제에 관해서 相反된 두 見解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서울大學校만이라도」라는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는 발전철학이며 다른 하나는「모든 大學의 均衡있는 發展」을 지향하는 것이다. 前者에 의하면 母校만이라도 세계적수준의 모범적인 大學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컨데 우리의 大學敎育의 역사는매우 짧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이런 문화사업은 단시일내에 內實을 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여건속에서 母校는 지금까지 온겨레의 物心양면의각별한 支援과 念願을 한몸에 지니고지금과 같이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大學校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大學을 다 같이 한꺼번에 발전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하나의 大學校만이라도 제대로 키워야하겠다는 것이 해방후의 고등교육의 기본방침이었던 것같다. 母校는 다행히도 그러한 示範大學으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기본방침은 매우슬기로운 것이었으며, 母校는 또 그러한 방침에 상응하는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母校가 지금까지 다른 大學의 추종을 불허하는 발전을 해왔음은이러한 교육방침의 덕분이었음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줄 안다.

이러한 母校발전의 기본이 되는 哲學을 흔들고 있는 것이「모든大學의 均衡있는 發展」哲學이다. 이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갖는 고등교육의 資源을 모든大學에서 균형있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배분의 문제는 오늘날 어느 의미에서 우리 社會全體의 심각한 문제이다. 그 餘波가 대학발전의 문제에 까지 파급된 것 같다. 여기서 分配的 正義의 문제를 외면할 생각은 없다. 다만 母校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종전까지의 중점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母校는 지금 첨단과학기술의발전을 위한 제반 교육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民族의 大學으로의 발전을 위해 奎章閣과 博物館의 新築을 서두르고 있다. 예컨데 奎章閣의 圖書는 우리 大學만의 圖書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귀중한文化的共同遺産으로 우리가 거족적으로보존활용해야 할 資産이다. 奎章閣新築費책정에 있어 一般 建物의 新築費를적용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없을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의 行政의 실태를 생각해 볼 때 비일비재 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방관할 수도 없다. 여기에 우리 同門 모두가 母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협조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母校는 새해에는 벅찬 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니 동문들의理解와 聲援으로 그 계획이 더욱 알차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會館建築費 4억 포함 올 豫算 6억 4천만원

33차 冠岳會 理事會서 승인

재단법인 冠岳會는 지난달 15일 하오 6시가 든호텔에서 제33차 理事會를 열고 올해의 事業計劃및 收支豫算(案)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예산은 회관준공후 첫 會計年度임을 감안하여 모든 收入과 支出을 적정선으로유지케 함으로써 차기 회계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게했다.

예산은 크게 ▲目的事業부문 ▲收益事業부문 ▲資本的支出부문으로 구분했다.

먼저 奬學金및 敎授硏究費지급등 재단법인 冠岳會의 본래의 사업인 目的事業부문 예산을 보면 ▲收入之部에서 기본재산에 대한 受入利子로 1천2백만원이 책정된 반면에 ▲支出之部에서는 奬學金및 敎授硏究費로 2천만원(87년에는 7백만원), 會館建築費 잔금지급금으로 4억, 人件費 7백30만원, 기타 會議費 圖書通信費 事務費등을 포함 총 4억3천2백65만원으로 짜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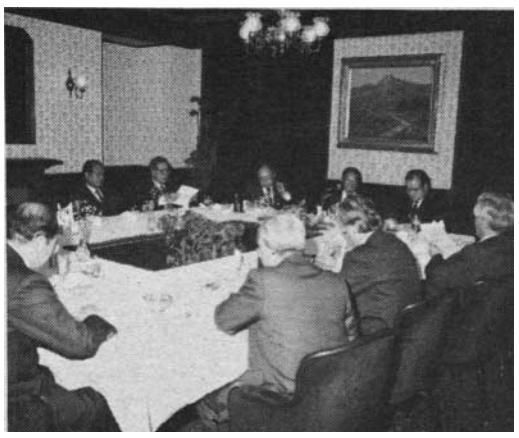
이에따라 4억2천65만7천2백원의 적자 요인이 발생, 이중 會館建築費잔금 4억은 1층 은행임대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會館賃貸收入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收益事業부문 예산을 보면 ▲收入之部에서 會館賃貸料가 7천2백8만4천원, 그리고 維持費(管理費)가 5천3백17만8천원으로 총 수입은 1억2천5백26만2천원이다.

반면 ▲支出之部에서는 水道光熱費 4천6백84만1천원, 淸掃費 4백3만6천원, 修繕費 3백47만원, 廣告宣傳費(室內 안내간판비 포함) 3백30만원, 火災保險料 2백30만원, 消耗品費 2백14만원, 事務費 1백29만6천원, 圖書通信費 2백25만원, 人件費 3천2백25만6천원 등 총 지출은 2억87만7천1백60원으로 7천5백61만5천1백60원이 적자로 짜여졌다. 그러나 적자속에는 減價償却費 6천80만원, 稅金과 公課 3백5만원, 退職準備金 2백68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적으로는 2천2백87만원의 잉여금이 생기는 셈이다.

한편 資本的支出豫算은 방청제 펌프설치(50만원) 복사기 구입(3백만원), 기계식주차기 설치(4백만원) 등 7백50만원이다.

이에따라 冠岳會의 올해 총 예산은 收入 1억3천7백26만2천원, 支出 6억4천1백3만4천3백60원(회관건축비 잔금 4억 포함)으로 책정되었다.



◇올해 예산을 확정한 冠岳會이사회.

會員카드 電算化 착수

컴퓨터購入、4월부터 본격入力

새 名簿제작용 同門카드 송달바라

同窓會館의 완공과 함께 本會에서는 지난해부터 「14만동문이 다함께 참여하는 同窓會」란 슬로건 아래 전회원의 인적사항을 電算化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준비작업에 착수한바 있다.

지난해에는 電算化를위한 1차적인 준비단계로 회원들의 정확한 소재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많은 동문들로부터 「會員카드」가 접수되긴 했으나, 14만여의 회원수에비해서는 아직도 미미한상태이다.

동창회에서는 모교 電子計算所의 협조를 받아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우리의 실정에 맞는컴퓨터의 機種 선택및 프로그램 작성등)을 거친 후 오는 4월 초순경부터는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본격 入力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다.

事務處에서는 이를위해 동문들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빠짐없이 電算化될 수 있도록 전동문은 아래의 「同窓會員카드」양식에 의거 늦어도 3월 末까지는 동창회로 우송해줄것을 바라고 있다.

14만 동문 모두의 정확한 신상이 컴퓨터에입력되려면 무엇보다도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 특히 현재 동창회와 연락이 닿고있는, 즉 同窓會報를 받아보고 있는 동문의 협조는 더욱 절실하다.

14만 회원중 會報를 받아보고 있는 동문은 불과 5만여명밖에 안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현재 會報를 받아보고 있는동문은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주위의 동문, 예를들어 同期 선후배 서클가족및 친지 직장동료등을 서로 확인하여 全同門의 정확한 신상이 電算化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동문들이 보내준 「會員카드」는 금명간 발간 예정인 會員名簿에도 그대로 활용되는등 동창회 組織管理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海外에 거주하거나 別世하였을 경우라도 그 현황을 주변에서 꼭 알려줄것을 바라고 있다.

이번 電算化에 누락될 경우에는 새로 발간되는 會員名簿에 공란으로 처리되는것은 물론 회원으로서도 여러가지 불이익이 초래될지 모르니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電算化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同窓會館의 완공과 더불어 앞으로 동창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회원카드」를 보낼주소는 우편번호 121-040 서울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大學校同窓會 事務處로 하면 된다.

同窓會員 카드

姓 名	한문 :	한글 :	
出身大學	서울大學校	大學 科	年卒業
職場名		職位 :	
電 話	職場 :	自宅 :	
職場住所			
自宅住所			

大學院 관계

(모교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 碩·博士과정 모두 記載할것)

碩 士	專攻科目 :	修了年度 :
博 士	專攻科目 :	修了年度 :
特殊및 대학원		修了年度 :

워싱톤支部 골프대회

우승 李鍾斗 동문

본회 워싱톤지부 골프클럽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 버지니아주 리스버그에 있는 구스 크릭크 골프코스에서 본회 회장배 쟁탈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워싱톤지부 골프클럽은 지난회 본회에서 워싱톤지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해 회장배 우승컵을 제작해준것을 계기로 결성되어 이번에 1회대회를 개최하게 된것이다.

이날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1등 이종두(의대졸) ▲2등 고 Karl Edward(의대졸) ▲3등 이재승(의대) ▲4등 정홍택(농대졸) ▲장타상 고 Karl Edward.

골프회의 회장은 이성용동문, 총무는 정태경동문이 맡고 있다.

會長盃를 안고 기뻐하는 李鍾斗동문.

새해아침 同窓모임 잇따라

회장에 洪性也 동문 副會長·總務도 새로 選出

家政大

家政大同窓會는 지난 1월21일 江南 뉴월드호텔에서 제33회 定期總會를 개최했다。

南相瑀회장과 모교 李順嫂학장을 비롯 동문약 2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총회는 南회장의 환영사와 李학장의 인사및 모교소식 전달에 이어 前年度의 결산과 新年度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모교 家政大 재학생 3명(가정관리 이강이, 식품영양 김현숙, 의류 김은아)에게 1、2학기장학금(등록금 전액) 을지급했다。

총회에서는 또 임기만료된 임원진의 선임이 있었는데 南회장이 관례에 따라 幹事會에서 추대한 결과를 발표하자 전원이 의없이 이를 인준했다。

이에따라 새로 구성된 집행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洪性也(58년卒·인하대가정대교수) ▲부회장 金順五(59년卒·모교 재학시의 은사님을 비롯해 동문 약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하례식은 동창회장의 신년인사, 은사이며 현재 명예교수인 金遵敏·崔基哲교수의 말씀 그리고 학교측을 대표한 李雄植교수의 모교현황소개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이날 하례식은 칵테일파티를 비롯 2시간30여분동안에 걸쳐 진행되면서 선후배 동문간이 정담을 나누며 새해를 설계했다。

◇ 신입회원 환영회를 겸해 열린 家政大동창회 總會.

◇ 洪性也회장

崔容桓 동연 새支部長에

會員名簿 곧 發刊할 계획

嶺東支部

본회 嶺東支部(지부장 崔容桓)는 지난 12월14일 음식점,초원에서 정총을 열고 새지부장에 崔容桓동문(農大·강릉간호전문대학장)을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는 姜賢珪동문(齒大)、감사에는張英俊동문(商大)、간사에는 申文均동문(獸醫大)을 선출하고 支部를 더욱 활성화 하기로 했다。

새로 선출된 임원진은 支部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정확한 會員名簿를 조속한 시일내발간키로 했다。

師大

生物教育科 모임

本會회관서 열려

師大生物教育科동문회는 지난 5일 낮 2시 본회 會館 5층 관악홀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行政大院

18회 1部 同期會

회장에 愼秀範동창

行政大學院 제18회 1부 同期會는 지난 18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愼秀範동문(재무부 국유재산과 사무관) 을 선출했다。

그동안 회장을 맡아왔던 芮載斗동문은 오는 8월에 2년 예정의 공무원 국비유학으로 美國에 가게 되었다。

忠南支部

18차 理事會에서 確定

올 豫算 2천8백만원

본회 忠南支部(지부회장 成樂緖)는 지난달 8일 제18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해의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동문 약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회장인사、경과보고、의안심의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먼저 1987년도의 決算을 승인하고 2천8백만원 규모의 올해 事業計劃및 예산을 확정했다。

이어 지부의 활성화를 위한 理事會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곧 이어 새해 인사를 교환하는 交禮會가 베풀어져 송구영신의 회고와 함께 상호 친목을 돈독히 했다。

이날의 모임에는 회장을 대리하여 吳寅泳 동창회사무처장이 참석、축하했다。

法大

新年賀禮會에 1백50명 참석

獎學會 유공자에 感謝牌 증정

法大同窓會(회장 金性洙)는 지난달 13일 하오 6시 프라자호텔 더 수홀에서 신년하례회를개최했다。

趙完圭모교총장、申泰煥전총장、李漢基전국무총리、裵載湜법대학장등 내빈과 동문 약 1백5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하례회는 金性洙회장의인사、趙完圭총장의 축사에 이어 牌증정의 순서로진행되었다。

牌증정은 각종 훈·포장의 수상으로 동창회를 빛낸 12명에게 기념패를, 최근 임각한 동문에게는 축하패를, 그리고 낙산장학회에 특별장학기금을출연한 동문에게는 장학패를 각각 증정했다。

牌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기념패 ▲金性洙(오양수산회장·동탑산업훈장) ▲劉碩源(선경사장·동탑산업훈장) ▲金雄高(독립기념관사무처장·국민훈장동백장) ▲金斗其(서울시상공과장·녹조근정훈장) ▲李相赫(변호사·국민훈장동백장) ▲申鉉浩(감사원5국3과장·홍조근정훈장) ▲朴鎔道(상공부기획관리실장·홍조근정훈장) ▲徐憲鎭(마산지법밀양지원사무과장·홍조근정훈장) ▲崔性泓(청와대의전비서관·홍조근정훈장) ▲金英泰(경제기획원정책조정국장·홍조근정훈장) ▲金在國(외무부여권과장·홍조근정훈장) ▲金昭英(법대4년재학중·제29회 司試수석합격)

◇축하패 ▲金庸來(서울시장취임) ▲崔同燮(건설부장관취임)

◇장학패 ▲金學鎔(대우투자금융사장)

◇감사패 ▲洪哲和(정일학원장·기금출연)

패수여가 있은 후에는 李漢基전국무총리의 건배로 축배를 들며 선후배 동문간이 격의없는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또한 이날 하례회는각계에서 찬조해온 푸짐한 경품 추첨으로 더욱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모임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 政治學科동창회 定總모습.

文理大

政治學科 同窓會

定期總會 개최

監事禹炳奎씨뽑아

政治學科 同窓會(회장 金聖悅)는 지난 1월21일 하오 6시30분 호텔 新羅에서 1988년도정기총회겸 신년교례회를金聖悅회장、金相廣·具平會·金榮國부회장등 동문약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창회 발전을 위한 1억원 특별기금조성에 동문들의 협조를당부하고 또한 동창회보발간에 수고가 많은 편집위원들에게 특히 치하했다。

宋復동문(연세대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총회에서는 87년도決算을승인하고 또한 桂昌鎬감사의 사임에 따라 禹炳奎동문(국회의원)을 새로이 감사에 선임했다。이어 지난 1년간 동창회보발간에 협조해준 崔珊泳동문(연합통신전무)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商大

5회 同期會

黎明會명부 내

商大5回同期會(회장尹世極)는 지난달 會員들의 사진을 곁들인 黎明會名簿를 발간、회원들에게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된 회원명부에는 동기회회칙과 함께 회원들의 근무처 및 전화번호、자택주소및 전화번호가 수록되어 있다。

새해 事業計劃을 알아본다

═ 單科大學(院) 同窓會 ═

會員수첩 발간에 착수

─ 新聞大學院회장 金太文

첫째로 새해에는 제대로 된 회원수첩을 발간함 계획이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직 연락이 되지 않는동문들도 상당수 있고 아직도 海外에서 유학중이거나 敎授생활을 하는동문들이 다수 있는데 올해에는 이들의 연락처를 조사 확인하여 · 쓸모있는 회원수첩을 만들 예정이다.

둘째는 본 동문회가 목표하고 있는 여러가지事業들을 위하여 基金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현재의 財政사정은 매우 미약한 편이지만 會員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속에 반드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수 있을것으로 본다.

셋째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相助활동을 계속 펴나갈 계획이다.

平常的인 親和와 相互활동 이외에도 학계와 언론계 기타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동문들의 활발한 연구와 업적들이 豫見되며 특히 금년에는 다수 동문들의 議會進出이 예상되므로 많은 동문들이 애정어린 협력을 다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學術연구에 집중支援

─ 師範大學회장 朴冠鎬

금년에도 同窓會의 운영목표를 전년과 같이 ① 균형과 조화를 이룬 동창회 ②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동창회 ③ 敬老하고 報恩하는 동창회 등 세가지 사항을 基底로하여 동문간 자주 만나 대화하고 상호이해할수있는기회를 창출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 우선 동계방학중 남태평양지역 교육연수단 파견과 하계방학중 미주지역 교육연수단 파견을 위시하여, 국내에서는 同門親睦 바둑, 장기대회, 낚시대회, 등산대회, 테니스대회, 支會長 合宿 연수회, 支會育成支援, 同門慶弔事(祝賀및 慰問), 정년퇴직동문 功勞牌증정, 母校 정년퇴직 은사님초청사은연, 모교재학생 15개 학과 각과 한명씩전액 장학금 수여와 침묵회식 등등 동창회로서의 운영은 앞으로 商大同窓會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의를 했다. 우리 1만여 商大人은 『뭉치자 · 돕자 · 빛내자』는 캐치프레이즈아래 『總參與』의 정신으로 同窓會의 운영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기에 희망의 새해인 올해는 더 발전하는 同窓會, 더욱 빛나는 同窓會로 육성코자 한다.

첫째, 同窓會의 운영은 各期別同門會를 기초하여 運營體制를 개편코자 계획중이다.

따라서 期別同門會長은 當然職理事가 되고 이들로서 구성되는 運營위원회의 위원으로 理事會에 앞서 同窓會運營의 주요 정책을 결의하게 될 것이다.

둘째 88 · 89년을 同窓會基金造成의 해로 정하여 필요액의 基金을 추가조성코자 決議했다. 몇 사람의 同窓에 의하여 基金이 마련되는 것을 지양하고 전회원의 『총참여』로 基金을 조성코자하는 바이다.

세째 조직과 기능이 취약한 同門會를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5회 이후의 同門會는 年輪이 日淺하여 그 운영이 약한 관계로 運營强化에 總同窓會가 역할을 하고자 한다.

새해에도 商大人의 보람과 自矜心으로 변함없는 후원을 바라고 있다.

母校 발전위해 힘 쓸터

─ 醫科大學회장 姜信浩

지난 12월 10일은 87년 總會로 「商大人의 밤」을 가졌다. 3백50여명의 많은 동문들이 정담을 나누면서 변화와 민주화를 향한 진보의 과정을 겪었던 다사다난한 한해였으며, 우리는 母校의 발전을위한 결속을 널리 과시한 한해였었다.

同門여러분!

본시 同窓會란 동문들간의 유대를 지속시키면서 우의를 돈독하게 해주는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친목단체인 만큼, 신년도에는동창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동문간의 활발한 교류와참여를 위해 노력을 하는 구심점의 단체로 육성해야 될 것이다.

지난 1년간 많은 일들을 大過없이 치룰수있도록 보필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례를 드리면서 새해는 맞이하는 同門 여러분들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會報발행 定期化노력

─ 齒科大學회장 金周煥

우리 齒科大學 동창회로서는 丁卯年에 가장큰 일을 수행했다고 자부한다.

母校 初代學長으로서 한국치과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故 朴明鎭博士의 30周忌를 맞아서, 한국의 모든 齒科醫師들의 협조를 얻어 母校校庭에 자그마하지만 후학들의 정성을 담은 胸像을 건립하고 지난 11월 11일 除幕式을 거행, 朴明鎭博士의 功績을 기리다.

우리들의 가슴에 간직하게 되었다.

이제 戊辰 새해를 맞으며 할 일을 헤아려본다.

첫째 회원명부를 增補 제작한다. 84년 제작시 誤記, 漏落된 부분을 정정하고, 그간 4백50여명의 신입회원을 새로 등재하여 명실 상부한 회원명부가 되도록 한다.

둘째 지난해에 幽大同窓會旗를 제작하였으므로 금년에는 各支部의 旗를 제작하여 동창회의 각종 행사에서 단결의 구심점으로서의 상징을 삼을것이다.

셋째 會報의 발간을 정기화하여 전동문의 대화의 場이 되도록 한다.

넷째 基金의 확대에 전 동문의 참여도를 높여 동창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할 것이다.

母校 初代學長 故 朴明鎭博士 功績을 기리다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올해의 동창회 운영을 설계하는 일은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며 앞날에의 새로운 각오라는 의미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環境大學院의 前身인 行政大學院 都市및地域計劃學科가 개설된 20주년으로서 환경대학원동문의 수도 9백명이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동창회의 역사 14년 이만한 규모와 연륜에 비추어 우리 동창회의 활동은 상대적으로부진했다고 솔직히 시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엔 도약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된다.

지금 동창회에서는 會員名簿 발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많은 동문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동창회 운영의 기초가 되게하고 동문 상호간의 연계를 제고하기 위한 뜻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獎學기금 확보에 拍車

─ 環境大學院회장 全炳宇

언제나 마찬가지이지만 동창회 운영의 기본은보다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에 있다고 생각되기에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이점에 노력을 경주코자 한다.

또한 모든 동문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두루 마련하고자 한다. 87년에는 定期總會를 제외하고는 전체행사가 없었던바, 동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동문의 情을 나눌수 있는 기회가 소망스럽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 동창회는 후배들을 위해 보다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수년간 지속된 獎學基金의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1988년 올해부터는 環境大學院 동창회는 피상적 설계와 형식적 내용을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동문 모두가 참여하는「우리의 同窓會」가 되도록 노력할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行政 · 政策論叢 간행

─ 行政大學院회장 俞尙根

밝아오는 民主和合의 偉大한 時代를 여는 새해에 同門들과 사랑하는 母校 그리고 우리 祖國위에 全能하신 하나님의 恩寵이 充滿하시기를 懇切히 祈願한다.

이제 6 · 29宣言에 따라 民主發展에서 民族의 大和合과 88올림픽의 世界的인 大祭典이 잘치르게 될것을 確信하며 우리同門들께서도 새時代를 先導하는 役割分擔에 크게 寄與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한다.

우리同窓會에서는

① 母校(大學院) 當局과 積極協力하면서 同門들간의 友誼와 親睦을 더욱 促進코자 한다.

② 後輩들을 위한 獎學事業과 學術硏究의 支援및 善導事業을 例年과 같이 推進할 계획이다.

③ 行政과 政策論叢 發刊(同門들의 硏究의 廣場, 附錄을 最大限 活用, 同門들의 칼럼, 德談, 美談, 提言등 收錄)

④ 同窓會員名簿作成 및 親睦事業의 硏究등을 推進할 계획이다.

끝으로 同門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를 바란다.

醫大 33회

則則모임 探訪

醫大 33회同期會는 1979년 醫大를 졸업한 동문들로 구성된 會로서 「회원 상호간의 親睦을 증진하고 學術交流를 꾀함과 동시 모교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1979년 卒業하던 그 해에 곧바로 發足됐다.

이렇게 일찍 發足케 된 것은 어떤 動機가 있어서가 아니고 卒業 동문들 대부분이 새로운 과정을 거치기 위해 모교 病院에 남다 보니 자주 상면케 되고,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 자연히 會의 구성이 저절로 되고, 또 조직하는 結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會則도 定하지 않고 體係的인 組織도 없이 단지 會長만 選任해 놓은 채 처음 그대로 몇 사람이 몇차례 만나는 것이 전부였다며, 그 활동은 매우 미미한 상태였다는 것.

비록 졸업을 하여 社會人으로서 社會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는 하나 醫師로서의 완연한 資格을 갖추기에는 몇 단계의 과정을 더 거쳐야하는 特殊한 사정이다보니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가질 수 없었다는 입장이란다.

◇ 洪性台회장

그 몇 사람이 간혹 만나는 것도 특별한 시간약속에 의해 外部에서 만나는 것이야 니고, 병원내의 식당이나 혹은 휴게실 등에서 가운을 입은채 어쩌다 만나는 것이 만남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전한다.

同會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잡고 회원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게 된 것은 1986년 부터인데, 졸업후 7년뒤의 일이다.

그때란게 우선 의사로서 갖추어야할 제반 트레이닝기간을 끝내고 軍醫로서 軍服務를 모두 마침에 따라 상호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제각금 사회진출의 구체적인 면모가 확실해진 때라는 것. 곧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開業을 하고 있는데, 졸업후 7년뒤의 일이다.

그때란게 우선 의사로서 갖추어야할 제반 생충학교실)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때부터 會則이 制定되고 회원 動靜을 파악, 회원명부를 發刊했고 組織도整備하여, 同期會다운 모습으로 本格的인 활동을 展開해 나가기 시작했다.

同會는 7월에 定期總會를 갖고 年末에는 年會를 갖는 등 년2차례 定期모임을 갖고 있으며, 때에 따라 任員會를 수시 갖고 있다.

親睦行事로서는 회원의 慶弔事 참여를 根幹으로하여 開業이나 學位受位때의 祝賀會, 在外會員의 귀국 祝賀會 등을 갖고 있다.

同會의 正會員數는 1백74명. 그 중 學界에 10여명이 몸담아 本人의 석이비인후과)이 말고 난뒤 86년부터 洪性台동문(모교 醫大기생충학교실)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때부터 會則이 制定되고 회원 動靜을 파악, 회원명부를 發刊했고 組織도整備하여, 同期會다운 모습으로 本格的인 활동을 展開해 나가기 시작했다.

同會는 7월에 定期總會를 갖고 年末에는 年會를 갖는 등 년2차례 定期모임을 갖고 있으며, 때에 따라 任員會를 수시 갖고 있다.

親睦行事로서는 회원의 慶弔事 참여를 根幹으로하여 開業이나 學位受位때의 祝賀會, 在外會員의 귀국 祝賀會 등을 갖고 있다.

同會의 正會員數는 1백74명. 그 중 學界에 10여명이 몸담아 本人의 研究는 물론 後學을 위한 指導에 뜻을 두고 있고, 開業醫가 20명,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적을두고 있는 회원이 1백40명, 美國·日本등 海外 25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崔大容동문은 미국 마이애미에 거주하며 血管外科의 專門醫로서 활단을 파견할때 極地에서의 생활중 人體에미치는 제반 生理學的·病的 研究를 위한 자료수집을 目的으로 그의 일원으로 參加함으로써 대단한 勇氣를과시했다고 한다.

내년이면 同會는 卒業 10周年을 맞게 되는데, 이 때를 記念키 위해 同會는 Home Coming day 등 여러가지 다채로운 行事를 치를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同會는 參與度가 낮은 회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임에 參與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라 하며, 同期會라는 성격상 會員의중 가는 없이 오히려 감소 要因만 있는 실정을 감안, 비록 졸업은 늦은지 모르나 임학년도인 1973년도에의 예과에 入學한 者이면 회원으로도 영입할 수 있는 방안(회칙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한다.

同會 任員은 다음과 같다.

▲會長 : 洪性台(모교 의대 기생충학)

▲副會長 : 徐昌海(인하병원 방사선과)

▲企劃理事 : 朴元熙(보훈병원 비뇨기과)

▲財務理事 : 朴明植(외환은행의무실)

▲學術理事 : 金容鳳(충무병원정형외과)

▲監事 : 李明益(국립의료원 소아과) 朴成豪(모교병원 신경과)

專門醫 진출로 研究봉사 활발

주기적 친목행사 紐帶感 높아

◇送年의 밤, 앞줄左서 3번째가 朴宜松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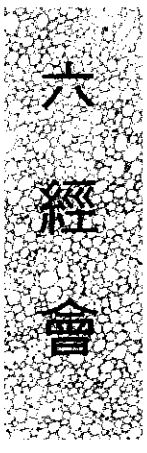
六經會(회장 朴宜松)는 모교 經營大學院을 6回로, 즉 1972년에 수료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졸업하던 해 바로 창립을 보아 현재까지 잦은 모임을통하여 끈끈한 紐帶를 이어오고 있다.

창립당시의 회원수는 34명이었으나 이미 作故한 동문 3명과 美國등 해외에 居住하고 있는 동문을 제외한 24명의 국내거주 동문이 主軸이 되고 있다.

同會는 창립과 동시에 매 隔月(짝수달)로 정례모임을 갖고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모임을개최해왔다고 康鉉鎬총무는 자랑이 대단하다.

특히 모임때에는 항시 夫婦同伴을 원칙으로하고 있고 春·秋 야유회때는 가족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흥겨운 여흥등을 가지며 하루를 즐기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제 회원들의 家族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것이 없을 정도이며 심지어 누구집에 젖가락이 몇개 있다는 것까지 알정도로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六經會를이끌어온 역대 會長을보면 초대 회장인 金永東동문(연희룡상회장), 崔甲錫(예비역 육군소장)·李鍾烈(한국탱크



六經會

문(우풍상호신용금고사장)이 말아보며 會의 발전을 위해 熱과 誠을 다하고 있다.

同會는 지난 77년부터 회원들의 慶弔事를 위해 동창회 기금을모금, 현재 1천5백여만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 기금으로 子女들의 혼례시와 父母의 별세시에는 祝花(弔花)와 함께 祝儀金(弔儀金)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규칙은同會가 부부동반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모임임을 줄시 부인의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다.

특히 이 기금은 회원들의 慶弔事와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의 經常費를 제외하고는 전혀 사용하지않고 있다. 그래서 모임

봄 가을 夫婦동반 야유회

慶弔時엔 전 회원 참가

때에는 스폰서 제도에 의해서 스폰서가 당일의 경비 일체를 부담하고 있다.

六經會창립이후 지금까지 줄곧 총무를 맡고 있는 康鉉鎬동문은 『오는 4월 총회전에 기금을 增殖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기금이 목표한 바에 도달하면 동문친목과 慶弔관계는 물론 모교지원에도 적극 관심을 갖겠다』고 피력했다.

同會 회원들의 사회진출상은 財界와 金融界로 大別할 수 있다. 이들의 面面들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계쪽으로는 초대회장을 역임한 金永東동문을 비롯하여 李鍾烈동문(627대회장역임), 金榮漢동문(829대회장역임), 任大均동문(마로니가구 부사장), 任大均동문(주식회사 화성사장), 趙英世동문(동양유지공업사장), 兪敏喆동문(고려여행사사장)·崔昌洛동문(대우 이사) 등이 있다.

한편 금융계쪽으로는 현 회장을 맡고 있는 朴宜松동문을 위시하여 禹炳喆동문(산업은행대전지점장), 金鎭元동문(한일중권상무)·金仙大동문(외환은행신월동지점장) 등이 있는데 특히 金仙大동문은 레코드취입까지한 八方美人으로서 날렵래 불우한 청소년도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주위의 귀뜸이다.

이밖에도 순천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朴哲浩동문, 海士7기(대령출신)로 다년간 외항선(한국선부)선장으로 해외를 넘나들고 있는 金鍊麗동문등 기라성같은 인물들이 많으나지면관계로 일일이 소개하지 못함이 아쉬울뿐이다.

끝으로 同會의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朴宜松 ▲부회장 金仙大 ▲감사 金學浩 ▲총무 康鉉鎬(美8軍 도서보급처).

齒醫學界의 先導者

═══ 朴明鎭 선생님 ═══

잊을 수 없는 스승

──글·安炯珪
〈47년 齒大卒·母校齒大교수〉

매일 출퇴근시 병원우측에 初代學長이시던 故朴明鎭박사님의 銅像을 보게 되어 그 선생님의 옛모습을 추모하며 그 시절이생생하게 뇌리에 떠오르며故人의 足蹟이 더욱 빛나게 생각된다.

선생님이 돌아가신지 30주년을 맞아 서울大齒大同窓會 및 大韓齒科醫師協會가 합동으로 1년여에 걸쳐 준비끝에 유가족들과같이 除幕式을 갖게 되었다. 대단히 後進들을 위하여晩時之歎은 있으나 의의있는 일이다.

우리가 1942년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에 입학하여 齒科界의 소식을 듣기 시작하자 韓國人 齒科醫師로서 두사람의 醫學博士중의 한사람으로 학교와 관계를 맺고 계시며 開業을 하여 성업중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일제시대엔 직접 상면한적은 없었다. 日帝가패망 8·15 광복을 맞아 학교는 일본인校長으로부터 한국인교수들에 의하여 접수되었다. 나는 日帝末에 지방으로 소개를 가게되어기차통학을 했던 관계로 접수당시의 사정은 자세히알 수 없었다. 45년 11월중순경 상경하여 등록을 마치고 級友들을 만나서 비로소 學校이야기를 들었다.

이 때 朴明鎭선생이 學長이 되시고 李有慶선생이 附屬病院長, 鄭保羅선생이補綴部長, 李春根선생이 口腔外科部長이고 그밖에 朴道信선생 金貞奎선생님등이外部에서 오시고 助手, 副手, 副手補등 젊은 선생님들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학생회를 조직, 自治活動을 하고 있었는데 左右翼으로 갈라져 혼미한 상태였었다. 나는 학생이였기에 學校의 財政狀態는잘 몰랐으나 經營難이 심하였음은 미루어 알수있었다. 학생들은 학교에 많은 것을 요구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同盟休學을한다, 學生會에서 규탄한다등 學校當局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며 유지해가는 형편이었다.

1946년 서울大學校가 발족함에 朴明鎭선생님은당시 교수들의 협조하에 同窓會의 거센 반대와 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齒科大學을 서울大學校에 편입시키는 대결단을 내리셨다. 이것은 大勇斷이시었다.

齒科大學은 서울大學校의 單科大學으로서 발전의 기반을 성취하게됐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학생들의 소위 左翼學生들이 主軸이 된 國大案反對鬪爭을 겪는 波瀾萬丈의 苦難과 싸워서 승리하였던것이다. 그당시의 사정을 筆舌로 이루 표현할수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충분히 推測할수 있겠다.

나는 1947년 7월 11일 서울大學校齒科大學의제1회 졸업생이 되었는데졸업생은 37명이었다. 少數이나마 韓國人 敎授밑에서韓國人學生이 졸업한 첫번째였다. 많은 中途脫落學生이생겼음은 물론이다. 이때그당시 校舍였던 小公洞校舍에서 謝恩會가 간단히 행해졌는데 敎授·學生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석별의 情을 나누었다.

그때 학장님은 自轉車로 통근을 하셨었는데 퇴근하시면서 돌아가는 학생들을 보고 기뻐하시던 것이이제와 같이 머리에 떠오른다. 나는 이해 9월 1일부터 學長님의 허락을 받고 大學에서 계속 공부할수있게 되어 敎授生活의 初步과의 접촉은 더욱 없었다.

특히 그당시 4학년생은 학장님의 강의도 없었다. 그당시는 敎授會에 참석할 수 없어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다. 다만 매일 임상에 나와서 患者診療하고 오전에는 手術助手나 들고 하였다. 그시절에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오후에 개인병원을 경영하고 계셨다. 학장님만 개업도 안하시고 오후 늦게까지 학장실에 계시고 본부 혹은 외부출입을 하시었음을 흥미하게나마 기억할수있다.

1950년 6·25사변이 발발, 3개월간의 적치하에서는 다같이 고생하였을뿐이다. 9·28수복도 잠시, 1·4 후퇴하여 각자 분산하여 피난길에 올랐다. 나는 피난도중에 父親이中風으로 반신불수가 되셔서 병치료와 가사정리를 하고 다음해 피난학교에 다시근무하게 되었다. 釜山假校舍에서 학생들 강의의 實習을 하였으며 교직원들도 몇사람 없었다. 학장님, 교무과장에 金永昌선생, 학생과장에 金東順선생이 주로학교에 계시고 臨床實習은釜山光復洞의 金相讚齒科와 警察病院齒科에서 학생몇사람나와서 命脈이나마 유지하는 실정이었다. 그때 校舍는 大廳洞 山꼭때기에 他學校들과 즐비하게 學校村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시절 學校인근에 火災가 나서 연소하기 시작하고 주위가 불바다가 되었었다.

◇ 齒大구내에 세워진 故朴學長의 銅像

強靭하고 多情한 면 크게 돋보여

學校재산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적부와 현미경 정도였다. 金永昌교수와 같이 이달을 지냈는데 많은 학생들의 결사적인 도움으로 겨우 화재를 막고 현미경은 학생들이 각자 몇개씩 집으로 가져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지고 등교하던 일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때 影島에 학장님이 거주하셨는데 夜光에 冲天한 火光을보시고도 움직일수 없으시어 밤중에 친척 한분이 현장까지 오셔서 연소를 면한 것을 보시고 귀가하신 후에야 날밝기를 다려 학장님이 登校하시어 처음으로 많은 칭찬을 해주시던 일이 생각난다. 학장님은 마음속에 모든 일을 간직하시고 얼굴의 표정에도 보이지 않으시나 强直하면서도 多情多感하시고 人情이 넘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나는 1953년 3월에 待望의 專任講師職에 올랐다. 실로 졸업후 6년만에 맞는 기쁨이었다.

정부도 환도하고 대학도 서울로 복귀하여 황폐한주위를 정리하고 재건사업에 들어갔다. 학장님은 齒科醫師會에도 관계하시고 齒科醫學會長職도 가지고 계시었다. 매년 齒科醫師會總會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學術大會가 열리었다. 어느해인지 기억이 잘안나는데 그해에는 學會준비가 늦어졌다. 나는 발표에 사용할圖表作成등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학장실에 들렸다. 學會場에 게시할 演題가 준비되어있지 않았다. 토요일이라 서무직원도 퇴근한 후였는데 시간은 오후四時쯤이였다. 演題는 약 50演題정도인데 학장님의 먹좀 갈아달라는 분부받고 먹을 갈기시작하였다. 갱지절반에 제목하나씩 쓰는데 학장님은 서당에 다니던 筆才는 있으셨으나 한장 쓰시는데 10분이상 걸렸다.

먹을 갈면서 웃었더니 왜 웃느냐고 말씀하시기에 10분에 한장씩 쓰시면 50장 쓰시자면 6시간이상 걸리겠읍니다라고 대답하니 『네가 웃으니 너 좀 써봐』 하시고 붓을 건네주시었다. 제가 徹夜하여서라도 써 놓을테니 퇴근하시기를 말씀드렸더니 『네 글씨쓰는 것을 보아야하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서부른 솜씨지만 速筆이였음으로 학장님이 보시고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하시며 귀가하시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 부탁을 하시면서도 成敗를 미리 확인하시기 위하여 쓰시는 것을 보시고 아야 귀가하시던 끝끝한 성품의 소유자이시며 겉으로는 강하시나 내면은 유하시고 말없이 부족한 점은 용서하여 주시는 內面은柔한 일면도 있었다. 이날 演題를 毛筆로 쓴것이 계기가 되어그 후 수년간 매년 학술대회에는 演題쓰는 것이 나의 책임으로 변하고 말았다.

齒科발전에 온몸 불사른 初代學長

私財 털어 후배양성에 힘써온 서울大人

자전거로 출퇴근, 弟子와 잘 어울려

또 나의 머리속에 길이 남는 일이 있다. 學校再建을 위하여 학장이 선진국(미국)에 가서 보고와야 된다는 희망과 여론에 따라 학장께서 약 4개월 美國齒科敎育機關, 硏究機關等 시찰을 마치고 돌아 오셨을때 이야기의 한토막이다.

이시절에는 放射線等 醫療와 X-線室은 口腔外科에 딸게되었다. 그시절에는 내가 全齒科界에 대하을 포함해서 X-線撮影機가 10대도 안된시절이었다. 그후 開業醫全體가 X-RAY를 갖게 되었지만 미국시찰에서 귀국하신 학장님께 X-線撮影室에 防禦裝置를 할것을요청드렸더니 미국에서도 防禦裝置가 잘 되어 있었다는 말씀만 하시고 시설에 대해선 말씀을 안하여 주시므로 나는 齒科新聞에 X線의 폭로로 인한 爲害작용과 防禦問題를 매월게재하고 학장님께 혼난일도있었다. X-線없이 개업한齒科醫師가 많은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지말고 잠시이 문제는 상당수에 X선장치가 도입될때까지 보류하여 달라는 학장님의 요청을받고 신문에 원고쓰던 것을 中斷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原始的이나 그당시로서는 나의 注文이 상의 것을 학장님이 손수 설계까지 하시어 우리 X-線室에도 防禦施設을 하게 되었다. 그때 만든 壁이 아직도 우리 학영실의 일부에 남아있다. 학장님은 현재우리나라 齒科敎育과 齒科界 전반에 걸친 기초를 구축하는데 초석으로서 다대한 업적과 공적을 남기셨고 그 분은 학장의 임무를 맡으시면서 많은 私財를 소비하시고 모든 정열을 우리 齒科界의 발전과 후배양성을 위하여 쏟으신 분이였다. 그리고의면으로 엄하고 내면은 유정 많은 분이시었다.

그러나 나는 직위상 敎授會議에는 한번도 참석한 일이 없기에 학교운영에관해서는 잘 모를 시절이었다.

朝夕으로 출퇴근길에 朴明鎭학장님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길이길이 선생님의 전의 공적을 찬양하며 아울러 故人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자랑스런 서울大가족

文盲퇴치에 앞선 基督敎 집안

이번 호 「자랑스런 서울大 家族」은 5男妹가 모두 모교 同門으로서 그 英才性을 발휘한 金嚴동문 一家를 소개키로 했다.

(金嚴동문은 取材要請을 받고, 서울大 出身의 기라성같은 선배와 同門 一家가 많을 터인데, 미약한 후배로서 지면을 할애받는다는 것이 마냥 송구스럽다며 극구 사양했는바, 그 뜻을 서두에 밝혀 둔다)

—먼저 집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先代의 고향은 平南 용강입니다. 아버님께서는 8·15解放후월남하셨지요. 할아버지께서는 漢學에 조예가깊으셨고, 敎育에 관심이높아 용강에서 서당을내어 주민과 아동의 文盲退治에 힘을 쏟으셨다고 들었읍니다. 당시의 時代的 狀況이 日帝治下인지라 그들의소위 한글말살정책이나 皇國臣民化등 온갖 탄압을 생각해 볼 때 敎育곧 文盲退治는 「祖國光復」이라는 측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寄與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존경심도 갖게 되구요』

—다섯 형제·자매모두가 모교 동문인데, 그러기에는 물론 본인의 학업성적이 뛰어난 점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뒷바라지도 여간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소개겸 그점을 기억나시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지요.

『아버님(金熙燦)은 國會 國防委員을거쳐 國務總理室 行政調整室長을 오래하셨읍니다. 金鍾泌·南悳祐·崔圭夏 前 總理를 모두 모셨으니까요. 청렴하시고 强直하시어 30년이란 오랜 公職生活을성실히 遂行하셨는데, 朝鮮日報에서 이 점을높이 評價해서인지 「最年少 專門委員 겸 最長壽 管理官」이라는題下의 記事를 게재한바도 있읍니다. 公職(公務員)을 떠나신 이후에는 大韓石油公社에入社하시어 監事와 常任顧問職을 맡으셨고, 현재는 顧問으로 계십니다.

아버님은 매우 家庭的이시며 저희들에게는 자상하기 이를데 없으셨지요. 휴일이면 公式的인 어떤 會合이 있신이상 절대 홀로 外出하는 법 없이 꼭 저희 형제·남매를 대동하셨읍니다. 주로 낚시여행 등을 많이 하셨는데, 아버님 먹분에 全國 각지 거의 안가본데 없이 두루 다녔읍니다. 그런 가운데 自然의 攝理와 더불어사람이 살아가면서 갖추어야할 德目, 行해야할 것과 行하지 말아야할 것 등 우리네 日常生活에 대해 격의없는對話를 나누며, 많은 가르침을 얻기도 했읍니다.

또 동물을 사랑하셔서 집에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셨는가 하면 이 백여종의 樹種을 가꾸시는 등 집을 都市속의 自然으로 꾸미기도 하셨는데, 그런 모든것이 안락한 가정생활속에서 生活의 여유를찾으시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버님은 특히 비록 家長이시긴 해도 무슨 일이던 가족 모두와의 논하고 가족의 찬성을 얻고서야 처리하는, 그야말로 民主的인 방식을 취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곧은 가운데의 부드러움, 엄격한 가운데의 자상하심을 절로 느끼게 합니다』

「持滿戒溢」家訓으로 최선의 노력

—父親 국무총리실 行調室長지낸 민주家長

다섯형제 妹弟합쳐 6명이 同碩

—慈堂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어머님(崔英姬)의 고향은 황해도 사리원인데 유복한 가정의막내로 태어나셨읍니다. 어머님의 고모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自由詩「불놀이」를 발표한朱耀翰선생이시고, 삼촌이 外國語大 學長과 統一院長官을 지내신 崔完福박사라고 들었읍니다.

어머님의 언니·오빠가 일찍 他界하심에외동딸로서 많은 귀여움을 받고 성장하셨다고 해요. 보통 유복한 환경속에서 곱게 자랐다고 하면 성격상 고집이 세거나 남에게 쉬이 의지하려고 하는 나약한 일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어머님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매사 적극적이시며, 건전한 思考속에 무척생활력이 강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梨花女高로부터 시작한 梨花맨이며, 日語·英語에 능통하시니까 內助가 무척이나 크셨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우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나 틈대로 매우 고심하셨었고, 공부로 인해 건강을 헤치지 않도록 食生活에까지 神經을 써 주셨읍니다.

日語에 능통하시니까 손수 日書를 번역하여 그것을 錄音, 공부에參考가 되게했고, 數學같은 경우 저희들이 오답을 낼때, 어느 사이인지 그것을 체크하여 손수 정답을 내시고는 테이프로 알려주시기도 나 들면, 학창시절 어떤 이슈에선지는 모르나 데모에 휩쓸리게되었는데, 『어머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라 도저히 데모를 할 수 없었다』는 실토를 들은적이 있었읍니다.

—家訓이 있다면.

『아버님께서 정하셨는데 「持滿戒溢」이란 것이 있읍니다』

—뜻을 좀 풀이해주시지요.

『항상 충만하게 가득차게 하되 넘치게는 하지 말라하는 뜻인걸로 압니다. 곧 每事에 最善을 다해 노력하되 과도한 욕심은 내지말라고 풀이할 수 있읍니다』

—부모님께서의 다섯동문에 대한 어떤 바램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정해 놓은 바램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가끔 저희 5남매를 두고서 「다섯기둥」이라고 묶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아들딸을 구분치 않은 주等한 가운데의 믿음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둥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집안의 대들보라는 뜻도 있겠으나, 社會속의 자기분야에서 튼튼가는 훌륭한 人才로 바르게 살며, 公益을 위해 무언가 헌신할 수 있는 人物이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金嚴동문 一家의 모교 동문현황을 金동문 중심으로 살펴본다.

▲누 나 金 倩동문 : 1974年 美術大學 應用美術學科를 졸업. 졸업 때 전체首席으로 大統領賞을 수상한 秀才. 졸업후 프랑스 파리 소르본느大學院에서 修學, 碩士學位를 받았다. 現 德成女大 교수로 재직중.

▲본 인 金 巖동문 : 1979年 醫科大學을 졸업. 産婦人科 전공. 現 忠南大學校 醫科大學 교수.

▲弟 金 勉동문 : 1979年 美術大學應用美術學科를 졸업. 美國에 留學하여 시라큐스大學에서 碩士學位를 받고 귀국했다. 현 한국디자인 포장센타의開發課長으로 재직중이며, 모교 講師로도 出講하고 있다.

▲弟 金 强동문 : 1982年 法科大學을 졸업하고 모교 大學院에서 碩士學位를 받았다. 稅法專攻. 현 東洋經濟硏究所 經濟調査室 硏究員으로 재직중.

▲妹 金 雪동문 : 1983年 音樂大學 器樂科를 졸업. 바이얼린 전공. 결혼후 美國에서 거주하고 있다.

▲妹夫 南尙沅 : 1981年 工大 電子工學科를 졸업했다. 졸업후 美國으로 留學, 텍사스 오스틴大學에서 碩士學位를 받고, 현재 同大學에서 博士學位 과정을 밟고 있다.

◇金雪동문 結婚式때의 家族사진.

忠南大 醫科大學교수

金 巖 동문一家

最善을 다해 노력하되 과도한 욕심은 내지말라고 풀이할 수 있읍니다』

—부모님께서의 다섯동문에 대한 어떤 바램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정해 놓은 바램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가끔 저희 5남매를 두고서 「다섯기둥」이라고 묶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아들딸을 구분치 않은 주等한 가운데의 믿음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둥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집안의 대들보라는 뜻도 있겠으나, 社會속의 자기분야에서 튼튼가는 훌륭한 人才로 바르게 살며, 公益을 위해 무언가 헌신할 수 있는 人物이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金嚴동문 一家의 모교 동문현황을 金동문 중심으로 살펴본다.

▲누 나 金 倩동문 : 1974年 美術大學 應用美術學科를 졸업. 졸업 때 전체首席으로 大統領賞을 수상한 秀才. 졸업후 프랑스 파리 소르본느大學院에서 修學, 碩士學位를 받았다. 現 德成女大 교수로 재직중.

▲본 인 金 巖동문 : 1979年 醫科大學을 졸업. 産婦人科 전공. 現 忠南大學校 醫科大學 교수.

▲弟 金 勉동문 : 1979年 美術大學應用美術學科를 졸업. 美國에 留學하여 시라큐스大學에서 碩士學位를 받고 귀국했다. 현 한국디자인 포장센타의開發課長으로 재직중이며, 모교 講師로도 出講하고 있다.

▲弟 金 强동문 : 1982年 法科大學을 졸업하고 모교 大學院에서 碩士學位를 받았다. 稅法專攻. 현 東洋經濟硏究所 經濟調査室 硏究員으로 재직중.

▲妹 金 雪동문 : 1983年 音樂大學 器樂科를 졸업. 바이얼린 전공. 결혼후 美國에서 거주하고 있다.

▲妹夫 南尙沅 : 1981年 工大 電子工學科를 졸업했다. 졸업후 美國으로 留學, 텍사스 오스틴大學에서 碩士學位를 받고, 현재 同大學에서 博士學位 과정을 밟고 있다.

주위에 5인이상의同門家族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 巖동문 一家의 幸福과 健勝을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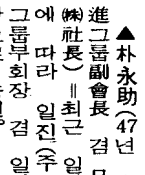
▲趙永植(50년 法大卒·廖熙大總長)=1월 13일

▲閔庚天(50년 文理大卒·서울市教育會회장)=1월 6일 정오 세종문화회관 교육계인사 및 문공위원등 3백여명을 초청, 신년교례회를 개최。

▲金鼎錫(49년 農大卒·慶尙大교수)=1월 25일 30여년간 倍로 공로 세계평화교수협회 제정 제12회 아카데미賞을 受賞。

▲蔡汝植(48년 文理大卒·國會議員)=1월 14일 민주정의당대표위원에 임명되었다。蔡동문은 文理大동창회장이었다。

▲朴浚圭(48년 文理大卒·前共和黨議長)=1월 25일 美하와이 東西文化센터가 마련한 「1900년대 한국의 정치와 경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키 위해 出國。



▲朴永助(47년 商大卒·日進그룹副會長 겸 日進輕金屬(株)社長)=최근 일진그룹인사에 따라 일진(주)사장에서 그룹부회장 겸 일진경금속사장으로 승진。

▲趙炳華(43년 師大卒·本會理事·詩人)=86년 普로렌스旅行 이후 쓴 1백여편의 시와 삽화를 함께 묶어 31번째의 시집「길은 나를 부르면 를 出刊。

▲文鴻柱(40년 法大卒·本會理事·韓國精神文化硏究院長)=최근 「韓國憲法(第6共和國)」 개정판을 出刊。

▲趙亮來(56년 文理大卒·美아르곤硏究所加速機建設本部長)=최근 浦項工大가 추진중인 자문하기위 입자가속기건설을 목표로 35년간의 공헌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受勳。

▲李喜鍾(56년 文理大卒·本會理事·金星産電(株)社長)=1월 14일 産電부분의 일본측 합작선들과 88년도 업무협의를 마치고 귀국。

▲南惠祐(56년 大學院卒·貿易協會長)=1월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亞·太무역회의에 참석코 귀국。

▲鄭漢模(55년 文理大卒·本會理事·詩人·文藝振興院長)=1월 14일 台中市에서 열린 제3회 자유중국 아시아詩人大會에 참석키 위해 出國。

▲劉永明(54년 音大卒·서울敎育大學교수)=최근 제7회 한국성악경연대회를 삼익악기 강당에서 개최。劉동문은 韓國聲樂會회장직을 맡고 있다。

▲成樂正(54년 工大卒·本會理事·京仁에너지(株)社長)=1월 11일 韓國火藥그룹인사 조치에 따라 경인에너지(주)사장에 추대되었다。

▲朴玉鉉(52년 文理大卒·本會理事·慶北開放大學長)=지난 17일 일본·노르웨이·핀란드 등지에서 새 제지기계 도입상담을 갖기 위해 출국。

▲崔根善(59년 工大卒·(株)金星社사장)=1월 8일 대화 재단측에 사퇴서를 제출, 1월 19일 민주당 부총재로 입당했다。

▲李洙彬(61년 商大卒·本會理事·東邦生命(株)社長)=1월 29일 네덜란드 NN그룹의 존 커회장 및 미국조지아생명보험 헬멘스부사장과 生保시장 시찰차 출국。

▲黃秉泰(58년 商大卒·前外務部長·國語大總長)=지난 12월 외국어대학 설립재단 이사회에서 제5대 총장에 선임되었다。

▲朴肯植(58년 文理大卒·本會理事·科技處長官)=1월 20일 하오6시 서울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번역서 「技術과 人間의 未來」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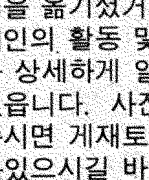
▲林成澤(58년 工大卒·本會理事·三南石油化學(株)社長)=1월 11일 三養社그룹인사조치에 따라 三養社부사장에서 삼남석유화학(주)사장으로 영전。

▲李徽永(57년 法大卒·本會理事·汎韓火災海上保險(株)社長)=최근 범한화재해상보험(주)부사장에서 社長으로 榮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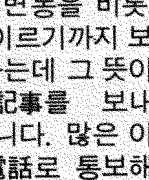
▲吳在德(57년 法大卒·本會理事·韓國火藥(株)社長)=1월 11일 한국화약그룹인사조치에 따라 부사장에서 社長으로 영전。

▲安啓春(61년 文理大卒·延世大교수)=지난 12월 20일 韓國人口學會총회에서 會長에 連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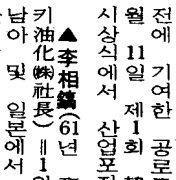
▲李啓燮(61년 文理大卒·本會理事·韓國觀光公社사장)=1월 18일부터 런던에서 열린 태평양-아시아지역 관광협회 이사회에 참석코 귀국。



▲姜慶植(61년 法大卒·本會理事·國會議員)=최근 경제기획원차관, 재무부장관등 20여년에 걸쳐 체험했던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정리한 「經濟安定을 넘어서」란 著書를 출간。



▲金東吉(61년 師大卒·(株)京仁洋行會長)=反應性染料에 대한 국내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87년12월 11일 제1회 韓國科學賞 시상식에서 산업포장을 受賞。



▲李相鎬(61년 商大卒·럭키油化(株)社長)=1월 18일 동남아 및 일본에서 업무협의를 갖기 위해 出國。

▲朴成圭(65년 法大卒·大醫科大卒·(株)中央케미칼副社長)=1월 15일 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가스 주주총회에서 同社專務에서부사장으로 昇進。

▲朴鍾榮(65년 獸大卒·大會理事·(株)本社)=1월 16일 오후2시 최근 일진그룹副會長 겸 日進輕金屬(株)社長 및 일진(주)사장에서 그룹부회장 겸 일진경금속사장으로 승진。

▲金光宇(65년 工大卒·(株)日進電機社長)=최근 일진그룹인사에 따라 同社부사장에서 社長으로 승진。

▲朴源培(64년 商大卒·韓洋化學(株)社長)=1월 11일 한국화약그룹인사조치에 따라 한양화학(주) 전무에서 사장으로 영전。한국 프라스틱(주)사장도 겸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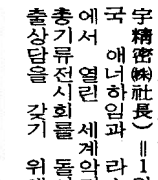
▲曺南鉉(70년 文理大卒·文學評論家·建國大교수)

▲閔範植(68년 經營大學院卒·景福高等學校長)=최근 열린 서울市敎育會 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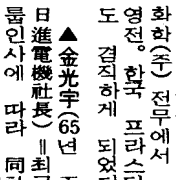
▲李漢龜(68년 文理大卒·成均館大교수)=지난 12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사주의와 역사철학」으로 제6회 洌巖學術賞을 受賞。

▲趙洪來(67년 文理大卒·國會議員)=1월 16일 오후2시 세종홀에서 최근 동문화회관 줄간한 「민주화시대의 농업정책」의 출판기념회 개최。

▲趙星基(77년 法大卒·小說家)=최근 장편소설 「베데스다」를 고려원에서 出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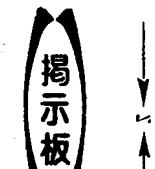


▲金允植(76년 大學院卒·文學評論家·母校人文大교수)=최근 作家硏究書로 품 자료와 評文을 함께 묶어 문학사상사刊으로 「李箱硏究」를 出刊。



▲趙成憲(74년 行政大學院卒·京畿道地方公務員敎育院長)=최근 총무처에서 실시한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우승기를 受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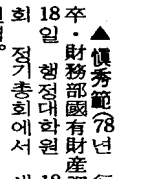
▲朴源培(64년 商大卒·韓洋化學(株)社長)=1월 11일 한국화약그룹인사조치에 따라 한양화학(주)사장으로 영전。



▲吳馨煥(69년 法大卒·總務處中央公務院敎育院企劃部長)=최근 총무처 총무과장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으로 영전。

▲全秀峯(86년 社會科學大卒·産業硏究院연구원)=최근 美國컬럼비아대학에서 통상법 연수차 유학중 年末에 귀국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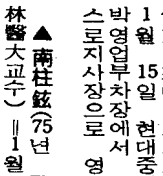
▲丙載斗(78년 行政大學院卒·總務處政府記錄保存所)=오는 8월 2년 예정으로 공무원 국비유학생으로 渡美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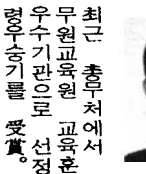
▲慎秀範(78년 行政大學院卒·財務部國有財産課)=1월 18일 행정대학원 18회 동기회 정기총회에서 새회장으로 선임。

▲韓大胤(74년 法大卒·現代重工業(株) 오스로支社長)=1월 15일 현대중공업(주)선박영업부차장에서 노르웨이오스로지사장으로 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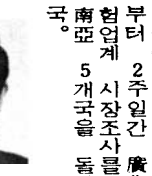
▲南柱鉉(75년 醫大卒·翰林醫大교수)=1월 15일 美예일대학에서 1년간 부인과 종양학연구를 위해 出國。



▲金秀峯(86년 社會科學大卒·産業硏究院연구원)=최근 美國컬럼비아대학에서 통상법 연수차 유학중 年末에 귀국 예정。



▲趙成憲(74년 行政大學院卒·京畿道地方公務員敎育院長)=최근 총무처에서 실시한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우승기를 受賞。



▲朴源培(64년 商大卒·韓洋化學(株)社長)=1월 11일 한국화약그룹인사조치에 따라 한양화학(주)사장으로 영전。한국 프라스틱(주)사장도 겸직하게 되었다。

動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변동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읍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많은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 2233-5

掲示板

新任 保健大學院同窓會 金大奎 회장

同門을 찾아서

基金조성, 會員명부 발간注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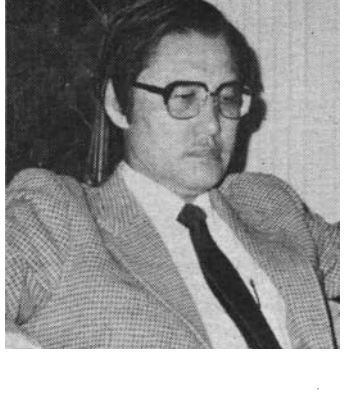
결핵퇴치에 平生바친 協会사무총장

『부족한 사람이 會長을 맡게되어 어깨가무거운 감습니다.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 자못염려스럽기도 하구요. 保健大學院은 單科大學과 비교해 그 역사도 짧고 卒業生 數도 이제 1천명을 갓 넘은 상태인데, 그런만큼 아직까지는 社會進出이나 活動領域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봅니다. 또 한 修學期間이 짧은데다 學部專攻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유대감 형성이 어렵고 參與意識도 다소 부족한 것같은데, 이러한 점을 십분 고려하여 事業을 展開해 나갈까 합니다.』

지난 10월30일 前任 鄭英彩회장(中央大교수)의 뒤를 이어 새로이 保健大學院同窓會 會長으로 選任된 金大奎동문(大韓結核協會 事務總長)의 취임소감이다. 그런가운데 구체적 활동방안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회원명부를 2년마다 갱신 發刊하고 있는데, 금년에 발간할차례예요. 그간의 주소이전이나 직장이전등 動靜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완벽한 명부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마 上半期쯤 發刊되리라고 봅니다. 또 同窓會의 자체 基金이부족하다보니 事業展開에 많은 난관이 있는데,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基金造成에 좀더 拍車를 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社會構造가 先進國型으로 移行하고 있는 과정인만큼 社會福祉수요도 그만큼 증가되고 있죠. 그중 保健에 대한 관심과 比重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러다보니 保健專門 人力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同窓會는 學校當局과의 共同努力하에 專門人力의 價値性을 널리 認識시킴과 동시우수한 人材를 供給할수 있도록 최대한 支援할 생각입니다. 이는 卒業生의 취업과도 무관하지 않죠. 다음 모교발전을 위해서도 미력이나마 지원을 아끼지않겠읍니다. 모교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면 비록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도 동문들의 뜻을모아 건설적인 의견을 기탄없이 진언할까 합니다.』

그러나 金동문은 이 모든 계획이 前任 歷代 회장들의 업적을계승하여 立案되었음을강조하며, 행여 그 분들의 그 동안의 업적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사 高見을 듣고 조심스럽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金동문은 1966년 保健大學院을 수료했는데, 大韓結核協會 弘報部長으로 在職하고 있을 때다. 그러나 金동문이 결핵협회와 인연을 맺게된 것은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創立될 때 發起人의 한 사람으로 參與하고 부터다. 당시 金동문은 「保健世界」(53·7·1 創刊)의 發行人겸 編輯人을 맡고 있었는데, 결핵협회가 창립되자이의 版權을 無料로 이관시키기도 했다. 이후 지금까지 35년간 金동문은 오로지 한 길로 결핵퇴치사업에 자신의 전부를 투척했다.

이러한 功勞로 해서 國民勳章 목련장, 國務總理, 保社部長官, 서울特別市長表彰을 受賞했고, 결핵협회 內部 人士로는 처음으로 事務總長職에 昇進키도 했다.

이렇게 金동문이 抗結核사업에 적극 나서게된 動機는 학창시절 결핵으로 인한 鬪病生活을 경험하고 난 뒤 같은 맥락이라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결핵환자는 80만명선에 이르고, 10大 死因중전염병으로서는 결핵만이 유일하게 끼고 있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實情이라는 金동문은 大韓結核協會의 全般的사업현황을 잠깐 밝힌다.

『주로 결핵에 대한 계몽, 환자 발견을 위한 X선 집단검진(년 1백50만명)과 객담검사(년30만건), 8개부속크리닉에서의 환자진료(년20만명), 그에 X-mas씰 판매와 결핵병학 학술조사연구, 전문요원의 교육 및 양성, BCG 전량생산및 무상접종 등의 일을 하고 있읍니다.』

青馬 柳致環선생으로부터 詩 추천을 받아 「現代文學」의 전신인 「文藝」誌에 등단한 詩人의 경력을 지니면서 쟁쟁한 詩人그룹이었던 사람들이 모여 同人誌 「청포도」를 4輯까지 발행했었다고 밝힌다.

『모든 것을 肯定的으로 생각하고 매사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生活信條이죠. 건강을 위할 겸 취미로 國궁을 시작, 매일 아침 南山 石虎亭에서 시위를 당긴다. (사정거리 1백45m) 夫人 張英姬여사와 1남1녀.

▲文太俊(50년 醫大卒·本會理事·大韓醫學協會長)=1월 15일 회갑을 맞아 연세대의 대신경외과학교실에서 회갑기념논문집을 증정받았다. 文동분은 14일엔 美國외과학회한국지회장에 선출되었다.

▲邊衡尹(51년 商大卒·母校社會大교수)=1월 30일 한국학술진흥재단 강당에서 한국계량경제학회 88년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邊동문은 同學會회장직을 맡고 있다.

▲柳光烈(56년 師大卒·本會理事·韓國自由詩人協會장)=최근 열린 한국자유시인협회총회에서 회장에 재선.

▲李正祐(56년 齒大卒·延世大齒科大學長)=최근 일본齒科保存學會 창립30주년기념학술대회에 한국치과보존학회 회장으로 초청받아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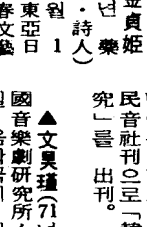
▲成樂俊(57년 工大卒·㈜日進社長)=최근 일진그룹인사에 따라 일진경금속(주)부사장에서 (주)일진 사장으로 승진.

▲金七龍(57년 農大卒·專賣公社 研究院教授局長)=최근 신탄진연초제조창생산국에서 전매공사연수원 교수국장으로 승진.

▲朴日在(59년 法大卒·學術振興財團理事長)=1월 5일 문교부발령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에 연임되었다.

▲金泰文(59년 工大卒·㈜油公가스專務)=1월 16일 영등포구 여의도동60(63빌딩51층)으로 사무실 移轉. 電話 784-6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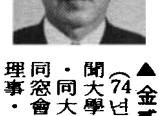
▲玄英鎭(59년 商大卒·㈜第一企劃社長)=1월 18일 創社 15주년을 맞아 年間 광고취급고 1천억원 돌파를 自祝.



▲金貞姬(61년 藥大卒·詩人)=1월 1일 東亞日報新春文藝 당선작은 「公募에서 詩當選」. 당선작은 「四季」

▲申堯澈(61년 醫大卒·本會理事·國際라이온스협회 國際理事)=1월 17일 홍콩에서열린 27차 동남아라이온스운영위원회에 참석코 귀국. 申동문은 至誠病院長이다.

▲尹永錫(64년 商大卒·本會理事·大宇造船㈜社長)=1월 14일



▲金貳煥(74년 新聞大學院卒·同大學院同窓會總務理事·東亞

▲金海星(71년 新聞大學院卒·本會理事·서울女大교수)=1월 15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제3회 學農詩歌文學賞을 受賞.

▲文昊瑾(71년 音大卒·韓國音樂劇研究所소장)=1월 29일 음악극에 대한 워크숍을 갖기 위해 참가신청자의 전형을 거쳐 4일부터실시할 계획.

▲金瀆(74년 新聞大學院卒·同大學院·本會理事·서울女大교수)=1월 3일 한국학술진흥재단 강당에서 한국계량경제학회 88년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邊동문은 同學會회장직을 맡고 있다.

▲金泰春(新郎·85년 農大卒)君과 朴鍾仙(新婦·母校在學中)孃=1월 16일 정오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結婚.

▲黃受顯(新郎·79년 經營大卒)君과 金美仙(新婦)孃=1월 16일 오후2시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結婚.

▲鄭東植(新郎·師大卒·京鄕新聞記者)君과 諸貞任(新婦)孃=1월 24일 정오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結婚.

▲崔覓燮(82년 工大卒)君과 강진아(新婦)孃=1월 30일 정오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結婚.

▲慶元澤(新郎·85년 社會大卒)君과 許晶(新婦·86년 社會大卒)孃=1월 30일 오후3시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結婚.

▲李榮載(新郎·85년 獸醫大卒)君과 柳賢淑(新婦)孃=1월 30일 오후4시 30분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結婚.

▲南閔祐(新郎·84년 工大卒·大宇自動車技術研究部)君과 朴賢淑(新婦)孃=2월 6일 정오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結婚.

▲金洪植(新郎·83년 工大卒·東亞出版社)君과 金라(新婦·85년 人文大卒)孃=2월 6일 오후2시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結婚.

▲朴奇烈(55년 師大卒)동문=女息 晟希孃이 2월 7일 정오 충남 예산읍 영빈예식장서 結婚.

▲洪尙鎭(新郎·87년 工大卒)君과 崔姬蘭(新婦)孃=2월 7일 정오 동창회관관악홀에서 結婚.

▲尹盛澐(新郎·社會大卒雙龍投資證券研究所)君과 朱根美(新婦)孃=2월 7일 오후2시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結婚.

▲李 燦(新郎·82년 美大卒)君과 이영자(新婦)孃=2월 7일 3시 30분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結婚.

▲韓光洙(新郎·78년 文理大卒·産業研究院責任研究院)君과 朴英順(新婦)孃=2월 9일 정오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結婚.

▲尹 瓊(新郎·83년 法大卒·司法研修院)君과 姜恩齡(新婦·母校在學中)孃=2월 14일 오후1시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結婚.

結婚

名譽教授 칼럼

서울大生의 長點

李萬甲
〈前 母校大學院長〉

서울大生의 長點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누구나 서슴치 않고 머리가 좋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그 대답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려운 입학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니 우수한 두뇌를 가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뇌의 우수성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英語로 된 略字에 IQ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는 知能指數라고 한다. 말하자면 두뇌의 우수성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하나의 尺度인 것이다. IQ가 百정도이면 보통 사람의 지능이고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두뇌가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IQ가 얼마나 사람들의 땅만큼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시험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작성하면 성적의 차가 불과 數點밖에 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심지어 零點받은 사람의 점수가 百點받은 사람과의 점수보다 높은결과를 가져오는 문제를 작성하는 것도 原理上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基本的인 知的能力을 옳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하면 異見이 없지 않다. 많은 教育心理學者들이 애써서 만든 IQ의 척도가 믿기 어렵다면 입학시험의 성적은 어느정도 믿어서좋을런지 의심스러운 일이다. 얼른 생각하기에 성적이 零點인 사람과 百點인 사람의 공부한 엄적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 있는 것이다. 좌측 腦皮質 그리고 좌측의 腦葉 더 많이 활용한 곰부의 엄적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다. 좌측 腦는 言語的이고 數學的이고 論理的이고 분석적인 기능이 강하다고 한다. 그리고 大腦新皮質은 知的인 작업에 긴요한 두뇌부분이다. 그러니까 입학시험에 합격하는데에는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긴요하다.

그러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그런것만이 아니다.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괴로움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체험하여 情緖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여간 중요하지 않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한 나머지 절망할정도로 生의 궁지에 몰릴때도 있다. 그때 다시 절망을 극복하여 血路를 뚫고 나가는 강한 意志와 그것을 굳게 뒷받침하는 확고한 信念이 긴요하다. 그런 시련을 이겨냈을때 그의 人格은 다져진 教養과 實踐的理性으로 빛날 것이다.

知性은 讀書와 토론을 통해서 精巧하게 가꾸어질 수 있지만 그 서 大腦新皮質부분에 밑의 邊緣系와 더 내려가서 生命의 근원이라고할 腦幹에까지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고 右腦도 활용하면서 좀더 인생을 책임성있게 체험하도록 邊緣系와 腦幹의 심층까지 옮길 수 있게 하는 교육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반적 혁신은 요원한 문제이며 당장 이루워지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서울大生의 경우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뽑힌사람들이고 그들의 대부분이 이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지며 훌륭한 비젼을 제시할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굳은 신념과 책임성이며 자기가 지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할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지도자는 결코 지도받는 사람들위에서 도한 자세로 호령하는 것이 아니다. 그사람들과 같이 살고 같은 情感을 나누어가지는 가운데 훈한 體感을 갖는 사람이어야 한다.

知的기술자로서 指導者로서 중요한 德性이 부족

參謀役엔 優秀

서울大生에는 그런德性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知的技術者로서 참모역할을 하는데는 우수할런지 모르지만 한 領導, 한 나라, 세계를 가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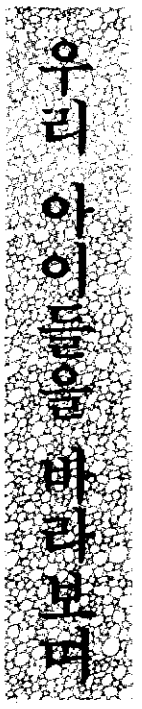
라면 억센 현실의 물결에 쉽게 무너질 것이다.

新皮質과 左腦에 크게 의존하는 교육의폐단은 비단 서울大生에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적지식과 기술에 치중하는 현대사회서 자라고 교육받은 모든사람에서 볼 수 있는결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新皮質과 左腦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귀한 의식이 얇아진 것은 예보다는 아이 기르는 게 훨씬 쉬워진 때문은 아닐까? 예보다는 부모의 사랑이 덜해졌다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정성은 덜해도 되기 때문은 아닐까?…

아이를 길러 봐야 부모 은 정성 옳은 말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가지는 심려의 순간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나를 기르실 때에 이러하셨으리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는 말 또한 진실인것 같다. 그것은, 발금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쏟았을 사랑과 정성을 새삼 헤아리고, 그 사랑과 정성 즉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는 사랑과 정성을, 우리가 부모님께 기질 수 있을까라는 자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감정에는 정적인 성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것 같다.

동문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50대를 내일모레로 바라보리만큼 늦게 이런 범상한 진리를 쓰고 있는 나를 탓하지 미시고, 그에 대한 나의 체험적 감성을, 때늦은 만큼 오히려 더욱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바랄 따름이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郭光秀
〈65년 文理大卒·
母校師大교수〉

同門 수필

작년 겨울에 들어서고 언제쯤엔가 우리 큰아이의 학령통지서를 받았다. 큰 감회랄 것은 없었지만, 어쨌든 이젠 스스로 옷 입고 세수하고 식사하고… 하게 될만큼 아이가 자랐다는 것을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읽는 것 같아, 그 아이를 두고는 아이 기르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나간 셈이라는 느낌이 세삼 들었다. 나 스스로 작년부터 『우리 영빈이 다 컸구나! 혼자서 세수하고 밥먹고!…』라고 가끔 그 아이에게 탄성으로 말하게 되곤 한다. 둘째 아이는 아직 두해쯤 더 있어야 그리 되겠지만, 금년에는 갈 것이다. 그리고 누나인 큰 아이가 사내동생을 신통하게도 잘 데리고 논다. 결혼이늦어져서 오래동안 총각으로 있던 나를 기억하는 분들 가운데는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새 그리 되었느냐고 깜짝 놀라는 이들도 있다.

대부분이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바이겠지만, 어린 자녀에게서 느끼는 기쁨이란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기쁨들과 가운데서는 —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 가장 원만하고 가장 온전한 것일 듯 싶다. 연인이나 친구를 만났을 때의 기쁨은 이에 비하면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고 막힌 구석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필경 창조적 기쁨, 맑혹스런 창조 행위 다음에 오는 기쁨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도 창조행위라는 손쉬운 유추 때문이 아니라, 그 양자가 결과하는 기쁨의성격을 체험적으로 비교해 볼 때에 그렇다는 것이다 — 풍만하고 아쉬움 가없고 어떤 아쉬움도 없는 기쁨…. 대부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일 터이므로, 나의 이 신통찮은 묘사라도 충분히 전달될 것이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보통사람들인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돈다 — 그런 생살이에 대한 가장효과적인 무기는 바로창조적인 기쁨일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허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아이낳아 기르는 것은, 따라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창조적인 기쁨에 맞먹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인 것이다. 말하자면 보통사람들의 경우 아이 낳아 기르는 기쁨이 인생살이와의 싸움에서 창조적 기쁨을 대신한다고나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역설적이지만, 나처럼 50대가 멀리 보이지 않는, 즉 삶에 있어서가 창조적인 시기를 거의 지나왔다고 생각되는 연륜에 있으면서 아직 아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기쁨은 역기능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도 여겨진다 — 창조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 창조의 괴로움을 겪으려 하기 보다, 아이에게서 오는 기쁨에 쉽사리 주저앉고 말것 같기 때문이다. 창조적인 시기를 거쳐 창조의 지나왔다고 생각되는, 즉 삶에 있어서가 창조적인 시기를 거쳐 기쁨을 대신한다고나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역설적이지만, 나처럼 50대가 멀리 보이지 않는 경우 그 기쁨은 역기능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도 여겨진다 — 창조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 창조의 괴로움을 겪으려 하기 보다, 아이에게서 오는 기쁨에 쉽사리 주저앉고 말것 같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 기쁨은 바로 부모의 사랑의 심리적인 이면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아쉬움 없는, 한 마디로 온전한 기쁨은 바로 이에게 대한 부모의 사랑이 풍만하고 가없고 아쉬움 없을수록, 온전함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나 제 자식이 가장 잘나보이는 것일 것이다. 내가 요즘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내 나이 또래의 날들과는 때늦게 정녕 각성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각자의 존귀함,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여기도 예외는 있겠지만, 우리들 하나하나가 모두 풍만하고 아쉬움 없는 그 엄청난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면, 아무리 경멸스럽고 엮겯고 증오스런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악하고 극악한 범죄자라도, 그만큼 길러놓은 그들의 부모의 정성과 사랑에 생각이 미칠 때에는, 일순 더 할 수 없이 귀한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것이다…. 어쩌면 요즘처럼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귀한 의식이 얇아진 것은, 예보다는 아이 기르는 게 훨씬 쉬워진 때문은 아닐까? 예보다는 부모의 사랑이 덜해졌다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정성은 덜해도 되기 때문은 아닐까?…

아이를 길러 봐야 부모 은 정성 옳은 말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가지는 심려의 순간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나를 기르실 때에 이러하셨으리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는 말 또한 진실인것 같다. 그것은, 발금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쏟았을 사랑과 정성을 새삼 헤아리고, 그 사랑과 정성 즉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는 사랑과 정성을, 우리가 부모님께 기질 수 있을까라는 자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감정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 감정처럼 전적으로 몰아적인 성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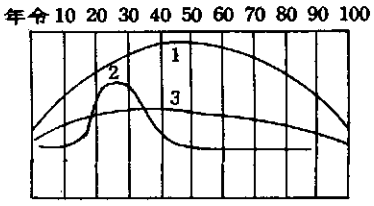
동문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50대를 내일모레로 바라보리만큼 늦게 이런 범상한 진리를 쓰고 있는 나를 탓하지 미시고, 그에 대한 나의 체험적 감성을, 때늦은 만큼 오히려 더욱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바랄 따름이다.

40代의 健康

健康교실 ⑪

洪 文 和
〈37년 藥大卒〉
母校명예교수

얼마전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傷病構造통계를 보니 三大 死亡原因이 순환기계질환, 각종 암 및 만성 간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40代남자의 사망율이 세계에서 으뜸가게 많다는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40代라고 하면 年富力强한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동시에, 不惑의 나이라고 하여 몸과 마음이 확고부동하여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강인한 연령층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 공식일 뿐이고 오늘날은 40代 처럼 고단한 시대의 말이 되었다. 인생을 산 지 40년이라고 하면 누구나 나이에 대한 저항력이 점점 약해지고 만성피로가 쌓이게 된다. 더우기 성격이 활달하지 못한사람에게는 이와같은 고민이 생기기 쉽다. 야심적이며 경쟁심이 강하며, 노력가이며 완전주의자이며 언제나 시간에 쫓기는 일을 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다 할 취미가 없으며, 담배, 술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1、정신기능
2、생식기능
3、운동기능

年令과 人體機能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 생겨서 매일의 생활이 불안해지고 만성피로가 쌓이게 된다. 더우기 성격이 활달하지 못한사람에게는 이와같은 고민이 생기기 쉽다.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한 외에는 이렇다 할 취미가 없으며, 담배, 술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그와 같은 자연적인 經年變化를 기만이 겪는 정신기능, 생식기능, 운동기능이 자연적으로 노화라고 생각하고 비관하는데서 병이 생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나이에 따라서 정신기능, 생식기능, 운동기능이 변화하게 된다. 그와 같은 자연적인 經年變化를 기만이 겪는 정신기능, 생식기능, 운동기능이 자연적으로 노화라고 생각하고 비관하는데서 병이 생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나이에 따라서 정신기능, 생식기능, 운동기능이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곡선 2를 보면 섹스기능은 20~30세 때 피크이고 40代가 되면 눈에 띄게도 저하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정신적기능만은 바로 40代가 정상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나돌고 있는 소설이나 영화, 또는 흥미 본위로 쓰는 性暴學이라는 글을 보면 섹스를 「포르노」 식으로 과장되게 표현하는가 하면 육, 칠십세가 되어도 성욕은 끄떡 없는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섹스의열등의식에 사로잡혀 고민하게 된다. 思考力과 정신적기능도 종합적인 판단력이 발달된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칫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기능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와 같은 변화를 노쇠라고 생각하여 초조한 생각을 지녀서는 안된다.

成人病의 약 70퍼센트는 마음에서 생긴다. 조바심, 노심초사등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성인병이 된다고 되어 있다. 위궤양이나 12지장 궤양도 40代에 가장 많이 생기는데 중국사람과 멕시코 사람들은 소화성 궤양의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적다고 되어 있다. 중국사람의 생활철학은 「메이화즈」(沒法者)라는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일상용어 중에서 흔히쓰는 「메이화즈」라는말은 「할 수 없지!」라는 체념의 뜻이다. 「아스타 마냐나」(Hasta mañana)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일이 잘 되어가지 않아도 걱정 대신에 「아스타 마냐나」(내일 또 하지!)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40代는 느긋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건강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詩情 담긴 매력의 세계

——宋 桂 先

〈57년 商大卒·韓國壽石會회장〉

趣味生活 ⑦ 壽石篇 ㊦

壽石生活의 제2단계는 얻어진 壽石을 演出 鑑賞하는 일이다. 壽石은 그 형태에 따라서 나무받침(台座)을 맞추어 그 위에올려놓고 보기도 하고 또 水盤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올려 놓은 다음 물을 뿌리며 감상하기도 한다. 수석에 물을 뿌릴때, 수석이 자라나는 냐 세째로 壽石은 江이나 바다 등 壽石産地에 나아가 많은 돌 중에서 수석이 될만한 것을 찾아서 가져오는 일이다. 수석이 수중에 들어오는 방법은 探石외에 친구를 통해 선물과 구매등도 있다. 그러나 探石이야말로 그 過程이 매우 중요하고 기쁨과 애환이 따른다. 수석생활의 중요한 분야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탐석시는 저마다 수석의 종류별로 名石을 한점 얻는 것이 所願이다. 一生一石이라는 말이 있다. 一生에 한점만 좋은 돌을 얻어도 좋겠다는뜻이니 名石을 발견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고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물론 그런 것은 아니다. 수석에 물을 주면 수석이 그본래의 石質, 特性, 色感 등을 잘 나타내 주기도 하고 또 山水景石일 경우 물을 뿌렸을 때 마치 실제 山水景 이 비온후 더욱 맑고 깨끗하고 생기가 돌듯이 壽石에서도 그런산

세째로 壽石은 自然美鑑賞의 世界이다. 수석이 자연경관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수석의 中 山水景石에 극한 心思想은 역시 人間의 自然에 대한 憧憬과 욕구를 만족 채우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때에언제라도 雪岳山이나 智異山 또는 丹陽八景을 볼 수 있고 또 그속에서 살 수 있다면수석취미의 맛은 半減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壽石人이 배어난 山水景石을 한점 얻어 집에서 감상할수 있기를 큰 소원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壽石이란 주로 屋內에서 감상하는 하나의 自然石으로서 그속에 자연의 山水景과 森羅萬象의 여러 모습을 縮縮하고 있어 우리에게 自然世界를 聯想시켜 주고 나아가 우리를 무한한 自然世界, 請情의 세계, 風流의세계로 이끌어주는 그런 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가 수석생활을 시작하면 대체로 세개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 첫째단계는 探石이다. 둘째 조건은 石質이 대체로 단단한 석질을 좋은 것으로 친다. 아무리 형태가 빼어나다 하더라도 石質이 약하여 쉬 변질되어 부서지는 것이어서는 가치가 없다. 뿐만아니라 단단한 石質의 돌은 좋은 形態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워서 희소가치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으며 약한석질은 人工的으로도 쉬이 變形시킬 수 있어서 단점이 된다. 세번째 조건은 色感이다. 진홍색즉 鳥石을 으뜸으로 치는 경우가 많고 갈색 青色등 다양한데 어느경우든 있고 차분하고 무게가 있어야 한다. 네째 조건은 自然美이다. 사람이 전혀 加工하여지지 않은 것이라야 하고 밀이 절단되거나 人工으로 造形된 것은 壽石이 아니다. 다섯째 조건은 古態美이다. 수 많은 세월 自然조건 속에서 갈고 닦여진 수석이므로 그 속에서 歲月感을 읽을 수 있고 고담한 品位와 幽寂한 太古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여섯번째 조건은 크기이다. 30㎝ 정도면 좋고 여기에서 약간씩 벗어나도 관계 없다.

形質·風霜·色感이 조화이뤄야
一生一石의 名石찾아 周遊天下

돗한과 活氣를 느낄수 있어 더욱 깊이있는감상이 가능하다. 수석생활의 세번째단계는 제1 제2단계에서의 物理的, 形而下學的 美의 추구단계를넘어서 壽石의 정신세계를 연구 개발하여 즉 기는 形而上學的 분야이다. 돌은 그 속성이 무겁고 말이 없고 변함이 없고 毅然하다. 그러기에 이 世上의어떤 조건 때문에 자신의 본질을 쉽게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으며 의연하게 스스로를 지켜나간다. 수석을 美學, 文學, 自然 또는 자연생활과 관련시켜 생각하면서 풍요로운 生의 정신세계를 개척함도 이 단계에속한다 하겠다.

壽石의 종류는 대체로 景石, 形象石, 紋樣石, 抽象石의 네가지로 분류한다. 景石은 경치를 이루는 돌로서 山形石, 平原石, 湖水石, 瀑布石, 島形石 따위를 말한다. 形象石은 사람 짐승, 달마등 무엇인가 物形을 닮은 것을 말한다. 紋樣石은 각양각색의 모양과 형태를이룬 무늬가 박힌 돌을 말한다. 완전 自然石이어야 하므로 연마하여 꽃무늬가 나타난 花紋石이나 美石과는 그개념이 다르다. 抽象石은 형태를 가리지 않고 抽象的으로 감상할 수 있는 돌을 총칭한다.

다음엔 좋은 돌의 條件 즉 名石의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자.

첫째 조건은 형태적 모양이다. 山水景등 그 형태에서 審美感을 불러 일으키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고 한편 개성이 뚜렷하고 여러 사람에게 共感을 불러 일으켜주는 돌이어야 한다.

新刊 안내

※ 이 欄은 同門들께서 펴낸 新刊서적을 紹介하기 위해 마련했읍니다. 새로 저술 또는 번역한 書籍을 本報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 韓國行政의 歷史的分析

— 趙錫俊 外 16人 共著

行政學 교수 17명이 공동으로 펴낸 韓國行政의 歷史的分析. 5·16 이후 현재까지 6대 정권에 걸쳐 행정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지를 분야별로 정리한 책. 3, 4부 행정학 교수 8명이 집필한 모두 1백 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本人寄贈 許諾者 芳名

(會費 一括納入者 = 1988년 12월 24일 ~ 1989년 1월 25일까지)

※ 人名밑의 괄호안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法 曹

◇ 大學院
▶ 金敬淑 (法學 ⑲)
▶ 金鍾燁 (法學 ⑲)
▶ 朴鍾鎬 (法學 ⑲)
▶ 李鍾根 (法學 ⑲)
▶ 李鍾鳳 (法學 ⑲)
▶ 李鍾鳳 (法學 ⑲)
▶ 李鍾鳳

同門作家 短篇選

교수와 군고구마 (上)

金 異 然

△65년 師大卒 △67년 「유리벽의 찻집」으로 文壇데뷔 △주요작품집으로 「유리벽의 찻집」 「쉬운 여자」, 장편에 「죽음과 함께온 아침」 「오후는 비워두세요」, 수필집 「사랑이 있는 삶을 꾸며」등 다수.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으로 맥빠진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중이었다.

남들이 다 부러워 하는 유학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만나 결혼하고 그 뒤에 남매를 낳아 키우다가 서울로 돌아와 모교의 교수자리를 얻고 콧대 세우고 당당하게 근무하다가 교환교수로 다시 외국으로 가고 향처럼 그리던 유학시절의 추억을 재 음미하면서 멋진 생활을 하는 중이다.

남편인 신교수보다는 아내인 이 교수의 연구학문이 그 나라의 사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수입도 아내 쪽이 더 많다.

그 무렵 서울에서 편지가 날아들었다. 대학을 신설하는데 학장직을 맡아줄 수 있느냐는 타진이었다. 학장이라면 모든 교수가 마지막 기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나. 신교수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수락의 편지를 썼다.

사실 그 편지를 받고 신교수는 며칠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두메 산골 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순전히 고학으로 이만큼까지 걸어오는 데 피맺힌 괴얼마나 눈물과 피맺힌 괴로움이 있었나.

이 학장직을 수락한다는 편지를 써 놓고도 아직도 그 사실을 확인해 보지않고는 믿을 수 없어서 아내한테 말하지 못한다. 혹시 그 대화이 형편없는 학교라면 아내한테 자랑해놓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아내의 자리가 신교수의 보다 훨씬 높아왔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신교수는 전화로 친구들한테도 알아보고나서 아내한테도 알리고 또 수락의편지도 보낼 생각이었다.

그것도 아내 몰래 진행하였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얻은 날 저녁 신교수는 아내를 레스트랑으로 불러냈다. 좀 멋

를 띄고 그 어정쩡한 시선으로 말한다.

『하필이면 이런 레스트랑이예요? 좀 점잖은 곳으로 정하지 않고요. 우린 이젠 돈 없는 선생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추억이 있잖소?』

『아직 우린 추억에 묻힐 때가 아니예요.』

아내의 그 삼투적인 우리의 입장이란 얘기를 듣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웨트 모자를 가볍게 머리에 얹어 놓은채로 마주 앉아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고 또 음식을 날라 올 때에도 아내는 한번도 빼 놓지 않분에 수준있는 생활을 해왔고 어렵지 않은 유학생활을 한 셈이었다. 물론이런 자리에까지 자기가 멋게 올라와 있는지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삼삼할 수도 없는 자리에까지 와 있다.

물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아내를 잘 만났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다.

『루슨 날이예요? 새삼스레 식사하자고 전화를 다 하시고, 당신답지 않아요.』

『나다운 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러지요?』

『언제나 놀라운 변화가 없고 한결같으면서 그 자리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약간은 비관적이라 할까요?』

『그랬던가요?』

『그래서 나는 그점을 사랑하고 거기에 빠진 여자로 살아왔지요.』

『감사하오.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을 업고 가야할 때가 온 것 같소. 언제까지나 당신의 힘이 필요한 남자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 왔오.』

『언제 당신이 내 신세를 지고 살았다고 해요?』

『당신이 몰라도 내가알고 또 세상이 알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몇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하는거예요?』

『참으로 오랜 세월이었소.』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서두가 길고 복잡해요?』

『아주 력키한 소식이군요. 축하해요.』

『고맙소. 당신도 나와함께 기뻐해주리라고 생각했소.』

『물론이지요.』

아내의 표정은 기쁜 것인지 절망한 것인지 아직도 명쾌한 삼태를 본 적이 없었다. 교양있고 냉정한 지성적 매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감정을 가늠하기란 몹시 어려운 것이다. 다만상대적으로 상식적으로 짐작하고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뿐이다.

한 참 만에 아내는 식사를 다 끝낸 뒤에 홍차잔에서 레몬 조각을 건져내면서야 신교수의 눈동바로 본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게 묻는다.

『그래 어떻게 답을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이젠 그 말을 생략해도될 것 같은데도 지치지도 않는지 꼬박꼬박 고맙다는말을 되풀이 한다.

언제나 신교수는 아내한테 뒤지는 일생을 살아왔다. 학교 다닐 때에는 아내가 단연 과 톱이었고 신교수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다. 겨우 시험공부나 할뿐이었고 교과서 외에는 다른 서적을 사 볼 여유도 없었다.

아내인 이 교수는 부유한 집안에서 모든것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남는부분을 가끔 신교수한테 나누어 주곤 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다시 유학시절에 사랑으로 발전되었을 때 사랑의 타향에서만 싹을 틔우기까지 아내덕 결혼에 이르기까지 했다. 실은 신교수는 아내의

母校소식

42회 卒業式 오는 26일 學行

모교 제42회 卒業式이 오는 26일 오후 2시 冠岳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이번 졸업식에서 본회 에서는 宋鍾昊군(경영대) 등 13명에게 同窓會長賞을 수여한다.

新入生 4천 3백 95명 선발

合格者 56%가 3백점 이상 得點수준 작년보다 낮아져

入學式 3월 2일 예정

모교 88하년도 신입생 선발이 1월 4일 총 4천 3백 95명의 최종합격자발표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합격자 사정결과에 따르면 3백점이상 고득점자는 전체합격자중 56%로 지난해의 67·1%보다 11%가량 떨어졌으며 2백80점이상의 합격자도 전체의 84·5%로 지난해의 95%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백79점이하의 합격자는 전체합격자의 15.5%로 지난해의 5%보다 훨씬 많아져 평균점수의 하락과 학과별 합격자의 점수폭이 넓어진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8년만에 부활된 先支援 後試驗제도에 의해실시된 이번 입시에서는도 법학 의예 전자공학과등인 학과의 합격선이 지난해에 비해 1~5점 가량 떨어진 반면 비인기 학과의 합격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지는등 학과별 합격선의 차이가 예년보다 좁혀진 것이 특징이다.

총 4천 3백 95명 모집에 1만 3천 3백 54명이 지원, 평균 3·04대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입시에서 전체 수석합격 겸자연계 수석은 하력고사에서 3백 31점을 얻은 鄭成泰군(물리학과·釜山충렬고)과 李日完군(전자공학과·서울瑞草高)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인문계 수석은 모두 법학과에 지원한 文鈴哲군(서울景福高), 宋沃烈군(서울景福高), 徐昇烈군(馬山창신고) 등 3명으로 하력고사 3백 26점을 받았다.

또 여자수석은 자연계에서 趙秀眞양(계산봉계)과 서울永東여고 3백 25점)과 인문계에서 權熙양(法大 浦項여고 3백 21점)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 입시에서는 또 安敦淳(법학과·光州인성고), 琪淳(의예과·光州서강고) 형제와 金庭妊(기악과·서울예고)·庭我(기악과·서울예고) 자매, 朴仁庭(제악학과·서울始興高)·喜庭(화학교육과·서울始興高) 자매등 쌍둥이 합격자도 3쌍이나 나와 화제를 낳기도 했다.

입학식은 3월 2일 모교 종합운동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物理學科 鄭成泰군

『갖은 고초를 겪으며 뒷바라지 해주신홀어머님께 이 영광을바칩니다』 물리학과에 지망, 전 지공학과의 李日完군과 전체공동수석을 안은鄭成泰군은 어머니 安玉順씨와 누나 여동생이 釜山市 東萊區 蓮山4동 단간 전세방에 살면서도 자신을 위해월세 공부방을 따로 마련해주어 오늘의 영광을 안게된데 대해 감사했다.

鄭군은 어려서부터생활의 아픔을 몸으로겪으면서도 줄곧 전교수석을 놓치지않은 수재. 중3 때부터는 밀알장학회가 주는 장학금을계속 받아 홀어머니의노고를 덜기도 했다.

공동首席의 영광

電子工學科 李日完군

전자공학과를 지원해 공동수석의 영예를 차지한 李日完군은 『시험은 어느정도 잘 봤다고 생각했지만 수석합격은 전혀 기대하지않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공인회계사인 李正大씨의 3남중 맏아들인 李군은 『평소 학교공부에 충실했을뿐』이라며 『하루 여섯시간가량 충분히 잠을 자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열심히 공부해온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말했다.

李군은 『대학을 졸업한뒤 대학원에 진학, 전자공학분야의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올 豫算 4백 50억 확정

人件費 2백54억 施設費 75억

人文·自然科學연구棟 신축

88년도 모교의 예산총액은 4백 50여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모교의 이번 국고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총액 88억 6천 6백만원, 세출예산총액 4백 50억 6천 8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7·9%, 세출예산은 18%가 증가하였다.

세입총액중 가장 큰부분인 학생등록금은 총 83억 9천 1백만원으로, 결과적으로 세입총액의 19·7%가 등록금이 되며 나머지 부분은 정부로부터 교육비로 보조받게된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운영비·시설비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전체예산의 56·4%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2백54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8%가 증가하였다.

한편 시설비는 8백만원으로서 전년도 2천 74억 2천 8백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31·2%가 증가하였는데, 이에따라 금년도에는 기초과학 및 자연과학연구동과 인문사회과학연구동, 농대 인문사회 습림관리사가 신축 또는 개축된다. 또 반도체공동실험센타, 의과대학교사, 유전공학연구소, 기숙사, 농대실험동 공사가 계속되며 공대실험동, 보건대학원 시범사업소등이 완공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형강의동이라던가 연구동

博物館공사도 再開

지난 85년 이후 2년간 예산이 없어 중단되었던 박물관 신축공사가 재개된다. 이는 88년분공사 예산으로 5억 9천여만원이 확정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당초 박물관 신축 건물은 총 6천여평의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건물로 설계되어 84년부터 85년까지 부지정리작업및 골조와 86년 봉작업까지 마쳤으나 예산집행이 중단되어 2년간 방치되었던 것. 완공은, 89년 이후 16억 6천여만원의 예산이 추가 집행되어야 가능하다.

한편 85년 착공되어 골조와 마감일부가 완성된 규장각 신축공사의 88년분 예산 2억여원도 확정되었다. 규장각 신축공사 또한 89년 이후 6억 9천여만원의 예산이 더 집행되어야 완공이 가능하다.

1學期 登錄 2월19~24일

學費免除 장학생도 절차 밟아야

제1학기 재학생등록이 2월19일(金)부터 2월 24일(水)까지 5일간실시된다. 장소는 전국소재 농협 혹은 조흥은행 본지점 및 간이예금 취급소이다.

복학·복귀·복적·재입학은 2월8일(月)부터 2월10일(水)까지 소속대학(원) 교무행정실에 제출하고 2월23일(火) 경리과에서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휴학원은 등록기간 중 소속대학(원) 교무행정실에 제출한다.

복귀생과 장학생으로 납입고지서상의 납입금이 0원인 학생도 반드시 등록절차를 밟아야 미등록제적의 불이익을 받지않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군복무를 마치고복학하는 학생은 입대 및 제대일자가 명기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88년 3월29일(수업일수 1/4선) 이전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서 1부를 첨부하고 전역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醫大서 국내 처음 신경과학연구소개설

醫大는 지난달 국내의 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신경과학연구소(소장 朴贊雄교수)를 개설했다.

이 연구소는 각종질환 모델동물의 뇌신경자극전달물질의 동태, 호르몬분비에 관한 뇌신경계조절역할에 관한 연구를 비롯 정신질환환자의 뇌신경계자극 전달물질동태와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 뇌신경계활성의 전기생리학적 기전, 신경전달물질합성효소의 유전자발현기전에 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등을 수행한다.

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모교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수의 연구실 규모는 5평정도밖에 안되고 대학원 학생들의연구실과 강의실이 거의없는 상태라는 것.

國庫에 의존해야 하는 모교의 재정은 지방대학 육성계획에 밀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금년에 모교에서 요청한 시설비는 2백54억원이었으나 예산에 반영된 것은 겨우 74억여원밖에 안된다는 것만 보아도모교의 시설부자에 달국의 보다 대폭적인 지원이있어야 겠다.